



KOREAN VERSION:

언론보도 자료

2010년 12월 1일

고대 순례여정의 3D 재현

이제 성지 순례객들은 세계에서 가장 유서 깊고 유명한 순례코스중의 하나인 카미노 순례코스를 3D 지도 기술로 체험할 수 있다.

Camino de Santiago (카미노 데 산티아고) 또는 Way of St. James (성 야고보의 길)이라 불리는 이 순례코스는 9세기경 야고보 사도가 떠났던 마지막 여정을 기념하는 것으로, 성야고보의 무덤이 있는 Cathedral of Santiago de Compostela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까지 이어진다.

카미노 순례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프랑스에서 출발하여 스페인 북서쪽에 있는 대성당에 도착하기까지 30여 일에 걸친 힘든 여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제 그 여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도움을 받게 된다.

뉴질랜드의 지도제작회사인 Geographx는 플라스틱 종이에 3D 지도를 제작하여 지형형태 표시법과 3D 시각화 기술이 지닌 잠재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국제적 명성을 가지고 있는 Geographx는 총 30 개의 3D 지도를 제작하였는데, 각 지도는 훌륭한 여러 카미노 데 산티아고 순례길 중에서도 1200년이라는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닌 가장 많은 이들이 찾는 Camino Francés의 다양한 지역들을 담고 있다.

카미노 데 산티아고 성지순례에 참여하는 이들을 위한 워크숍을 운영중인 Camino Downunder 회사 대표 Marc Grossman (마크 크로스맨) 씨는 본인이 직접 Camino Francés 순례를 마치고 난 후 이 지도에 대한 발상을 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로스맨씨는 순례지역의 지형을 상세히 알려줄 뿐 아니라 800 km에 달하는 도보여행 중에 순례객들이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수학적, 지리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주는 양질의 지도는 그 당시 지도 시장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고 전하면서, 뻔뻔_안내자들이나

관련 지도들이 담고 있는 정보와 실제로 걸어가는 순례길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순례를 시작하자마자 발견했고, 매일 지속되었다고_ 말했다.

이러한 차이를 발빠르게 메우기 위해 그로스맨씨는 순례지도 제작 및 지원을 Geographx 에게 의뢰했다. 순례객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지도 제작을 위해 그로스맨씨는 여행객들이 오로지 Camino Downunder 지도만을 사용하여 Camino Francés 순례를 마치도록 추천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도를 사용했던 순례객들은 이 지도의 사용이 순례 체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말하면서, Camino Downunder 지도가 내구성, 신뢰성, 정확성을 가진데다 3D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다른 지도들에 비해 해당 지역의 지형을 훨씬 자세히 묘사한다는 평가를 내렸다.

그로스맨씨는 3D 지도들이 매우 실용적이기 때문에 [카미노 데 산티아고에 대한 다른 안내서](#)는

필요 없을 것이라고_ 밝혔다.

3D 지도는 여행객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실시간으로 지형을 세로 모양으로 보여주며, 각 지도의 밑면에는 순례 코스 곳곳에 있는 추천 쉼터, 호스텔, 식당 등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도 제공한다.

지도의 비율은 1 대 100,000로, 순례객들이 지도의 1 cm를 실제 경로 1km로 환산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이 걸어온 거리를 손쉽게 계산할 수 있어 예정된 시간 내에 순례를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로스맨씨는 앞으로 2년 마다 지도를 보완하고 재발행할 계획이나, 현재 시장에 나와있는 카미노 지역 지도 중에서 Camino Downunder 다목적 지도가 가장 자세하고 정확하며 튼튼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순례를 시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수품이 될 것이라고 자신있게 전한다.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거나 지도를 구매하려면 <http://www.caminodownunder.com/>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된다.

-끝-